

“설계에 맞게 예가 산출하고 적정가격에 낙찰되는 풍토 정착돼야”

지난 2015년 6월 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제23대 회장으로 윤현우 (주)삼양건설 대표가 취임하였다. 오랫동안 건설업에 몸담으며 해박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그는 취임 이후 발주처와 회원사를 오가며 지역 건설업의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만성적인 일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및 발주처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형 공사의 분리 발주와 소규모 신규 공사 물량 창출 등을 건의하고 있다. 2,000억원 규모의 신한은행 인천연수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역 업체에 공사 물량의 30%가 배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윤현우 회장은 발주처마다 제각각인 입찰제도를 비롯한 중소 업체에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역 건설단체 11곳이 모여 올 1월에 설립되는 충북건설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 업체에 불합리한 각종 제도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가 공동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그는 이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향후 3년 간 수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윤현우 회장은 일감 확보 못지않게 수익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설계 내용에 맞게 공사 예정가격이 산출되고, 적정 가격에 낙찰이 되는 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윤현우 회장을 만나 지역 건설업의 애로 사항과 타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약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건설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각 시군 지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협회와 회원사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공감과 공유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회별 간담회에 참여하여 회원사의 애로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항 등 다양한 현안들을 귀담아 들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 회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는 역시 일감 부족입니다. 물량 확보를 위해서 각 지자체 및 발주처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형 공사 분리 발주와 소규모 공사의 신규 물량 확보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수익성 확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실적단가 폐지를 정확히 준수해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주처와의 유대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일반건설 업역 보호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소 건설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다수 지역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충북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묻지 않아도 헤아려지기는 합니다. 특히,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지역 특성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북 지역의 2014년도 수주 실적은 2조 2,000억원 정도인데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건설경기보다 현재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설경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건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는데, 공공공사의 지속적인 물량 감소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이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실적 신고 현황을 보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업체들의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주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신규 발주 물량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부문 역시 수도권 규제의 해제 등으로 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 건설산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 민간 건설 물량도 지역 경기의 침체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지역은 중부내륙철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여러 굵직한 SOC 사업 구간에 포함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 역시 커지는 상황일 텐데 지역 건설업계에서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중부내륙철도는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전체 94.9km 중 충북을 통과하는 구간이 71.2km입니다. 1단계 구간(이천~충주 53.9km)은 2014년 착공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2021년 완공 목표로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여 전체 물류 수송 중 철도 분담률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감으로써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축의 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국가 교통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권한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서 교통 수요가 증가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

인터뷰

고 현재 정부 측의 고속도로는 통행에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준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까지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먼저 추진하여 정부 측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통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충북 건설업계는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복선 전철을 연장하는 사업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 중부내륙철도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하루 빨리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와 정책들이 많아 개선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 경영 환경을 해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신지요?

최근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건설업의 업역 침범이라고 봅니다. 현재 4억원까지 전문건설업체에게 업역을 내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분리 발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설물유지업의 확장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만신창이가 되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입찰이나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조달청 회의에 참석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발주처마다 모두 다르게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가를 $\pm 2\%$ 나 $\pm 3\%$ 이내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도 0~5% 또

는 0~7%에서만 작성하는 발주처가 있어 의견을 낸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받아 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건설업체의 이윤 삭감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이 되는데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합니다. 신인도에서 0.5점의 가점을 주는데 이는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 없이도 만점으로 투찰할 수 있는 대형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한다면 가점이 아닌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회의 회장단과 힘을 합쳐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 정책의 상생 협력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충청권의 경우 피해가 가장 극심했는데, 앞으로 가뭄 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과 건설업 일감 창출을 위해서 이미 충북도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내에 방치되거나 개량이 필요한 소규모 저수지(방죽) 현황을 파악해 개·보수를 통한 물 확보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일감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의 건설 물량을 늘리는 데 있어 방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조한 지 오래되어 누수가 심한

방죽을 개량하는 데 있어 지금은 주로 보링그라우팅을 통한 댐질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원적 해결책이 못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도 늘리고 일감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을 높이거나 현재의 제방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후방에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는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 확보, 재난 방지, 물량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에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전망대 등을 꾸며 관광을 겸하는 곳으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가뭄이 심각한 지역을 찾아서 관정을 파주는 사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업에서는 수주난 외에도 수주에 성공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익성 악화 또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체 수익성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억원 이하 공사에 실적 단가가 폐지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시설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제경비 삭감 및 공종 단가, 노무량 삭감 등으로 채산성 확보는 고사하고 적자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면서 낙찰 가격이 과연 채산성 확보의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목적, 공사의 내용 및 규모,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설계 내용에 맞게 공사 예정가격이 산출되고, 적정 가격에 낙찰이 되는 풍토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 10% 절감 정책에 따라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면서 공사비 삭감을 통해 예산 절감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

는데, 보다 진정성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자재의 구입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하자 책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 원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재기한 건설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위기를 극복하셨던 노하우와 평소의 경영 철학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 직원부터 시작하여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20년이 넘도록 건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 내실을 기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법원 화의를 통해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리긴 했으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부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장을 일일이 챙기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이처럼 위기 극복의 노하우는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일을 직접 챙기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타인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구성원들과의 믿음 없이는 조직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굳건한 경영 철학입니다. CERIK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 인흥진 연구원